

매출 증감 상관없이 학원 300만원, 식당·카페 200만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다음달 11일부터 지급...누가 얼마나 받나

본인 건물 임대료 내지 않아도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재도전 장려금
소득 감소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전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 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그대로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을 받는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도 피해를 입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했다. 지원을 받지 못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과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라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이 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지원이 부족하네 다른 지원은 없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입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용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 본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정부는 지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이낙연(오른쪽 두번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란히 검찰개혁 깃발 당심 모으는 이낙연, 침묵 깐 이재명

‘윤석열 탄핵론’엔 수위 조절
“검찰 칼, 인권파괴 흉기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란히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공수처장 선정 등이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중진들의 의견을 들었고, 지난 25일 성탄절엔 법사위원들을 긴급소집해 윤 총장 직무복귀에 따른 대응책을 숙의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가 거듭 주장하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서는 “당시 책임있게 결정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로서의 주도적인 행보 속에 “당심”을 결집하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탄 연휴를 지나며 당원 가입자가 2만1천명 넘게 몰린 것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무당층이 늘고 이 대표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당심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가지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침묵모드”를 유지했던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슈에 목소리를 내려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전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됐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가 추미에 법무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추-윤 전선’에서 한발짝 비켜나 민생이슈에 몰두했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검찰 이슈로 외연을 넓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들의 격앙된 기류를 감안하면서도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셈이다.

당 관계자는 “중도층 표심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입장 표명을 삼가왔던 이 지사가 앞으로 이 대표와 스탠스를 달리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생계형 사범 2920명 등 3024명 특사...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제주해군기지·사드 반대 시위자 포함
112만명 운전면허·어업면허 회복

정부가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

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고,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해 3·1절과 작년 연말 특사 때에도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받았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000여명에게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은 제외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2018년 2월(4378명), 지난해 12월(5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

www.kps.co.kr

★ KPS-패러데이 스쿨 프로그램은 KPS 지역문화 New Deal 사업입니다.

‘KPS-패러데이 스쿨’ 국가 산업기술의 뿌리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한전KPS가 하는 일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국내발전설비 정비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신재생설비 정비

Perfect & Pride

★ 대한민국의 별을 키우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전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020년 KPS-패러데이 스쿨 추진성과

- 교사 연수과정 마이스터고 교사 연수과정 (20. 8. 3-8. 7. 18명)
- 학생 교육과정 제3기(화상교육) : 20. 11. 03~11. 06 / 113명, 제4기(화상교육) : 20. 11. 24~11. 26 / 114명
- 특성학교 과정 (화상교육) 광주 전남 특성학교 대상 약 100명 / 20. 12. 21~12. 23
- 장학금 후원 전국 마이스터고 2학년 대상 장학금 후원(222명, 총 2억 2천만원)

한전KPS주식회사